

교통편의 증진! 진도 공용터미널 ‘새 단장’ 완료

진도군 냉온풍기 설치 등 시설개선, 저상형 전기버스 도입으로 교통 복지 향상

진도군이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진도 공용터미널’ 시설 개선 공사가 12월에 완료됐다.

진도군은 지난해 7월부터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시행하며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는데, 공용터미널의 노후화로 인한 이용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진도군은 공용터미널 건물의 외벽을 보강하고, 오래된 창호를 교체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천장에 사용된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고 냉난방이 가능한 냉온풍기를 설치해, 군민과 관광객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한편, 진도여객은 ‘저상형 전기버스’ 1대를 도입해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저상형 전기버스’는 일반 이용객은 물론 노인과 교통약자의 승하차 편의를 높인 차량으로, 진도군은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저상형 전기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마저 군민의 삶의 질이라는 생각으로 시설개선에 힘썼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이 더 편안해질 때까지 교통 복지와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이 ‘2025년 식품, 공중위생 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식품, 공중위생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 “우수기관 선정은 군민과 위생업소 영업주가 함께 만든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우덕현 기자

광주시 내년 하수도 정비에 1000억 원 투입한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17건 확정…침수예방·도시 안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6년도 환경부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 사업 사업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도 분류식 사업 등 17건이 확정돼 국비 64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지속사업 15건과 신규사업 2건이며, 2026년에 국비 648억원과 시비 347억원 등 약 1000억원이 반영돼 하수도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도시 안전성 강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 사업을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비 확보는 총사업비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하수도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안정

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확보한 국비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침수예방시설 확충과 노후관로 정비,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하수도 악취 환경 개선 등에 집중 투입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 40km 정비 ▲북구 중앙6분구(두암동·우산동), 서구 서창1분구(화정3동·상무2동·풍암동), 광산구 소촌분구(운수동·소촌동)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동구·남구 하수도 악취 개선 ▲극락천 유역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 정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지방 침하(싱크홀)를 예방하고, 하수 처리 효

율을 높이는 한편 주거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의 관로 기능을 개선해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도시 침수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이 단계적으로 완료되면 ▲국지성 폭우에 대비한 배수 능력 향상 ▲침수 피해 최소화 ▲하수 처리 효율 증대 ▲주거지역 악취 민원 감소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훈 물관리정책과장은 “이번 국비 확보는 광주시 하수도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권일 기자

부안청년UP센터, 누적 방문객 4000명 돌파했다

부안군은 ‘2025 청년 행복코칭 금융교육’을 끝으로 2025년 부안청년UP센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으며 올해 누적 방문객 4000명을 돌파해 센터 활성화에 탄력이 불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은 지난해 2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총 120여명의 청년이 참여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금융기초, 재무관리, 저축·세금 이해 등 청년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실전형 금융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년들이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개념 이해와 함께 올바른 투자 및 재테크 습관 형성에 중

점을 둔 점이 참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지역특화 청년사업으로 추진한 GTQ 및 전산회계 자격증 교육 과정은 취·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반으로 운영돼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실무 역량 강화 중심의 교육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자기계발과 취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원데이클래스 강좌, 인생설계학교, 소셜다이닝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이자 청년 활동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군은 2026년 센터 프로그램 운영계

획 수립을 위해 청년 의견수렴을 위한 수요조사를 오는 27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운영 성과를 토대로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관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센터는 금융교육과 자격증 과정 등 청년의 삶과 진로에 직접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센터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수요조사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무주 건강 큐(QR)! 행복 온(ON)’ 제작·배부



무주군은 12월 24일부터 각종 보건사업과 건강정보 등을 함께 담은 “건강 큐(QR)! 행복 온(ON!)” 책자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65세 미만 세대주를 중심으로 전 세대에 배부되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공동 열람을 위해 관내 경로당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가족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유관 기관에도 비치해 군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책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에 보건 의료원에서 추진하는 분야별 보건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영유아·청소년·성인·노년기 등 각 시기별로 필요한 건강정보와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신체활동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보건의료·건강증진 사업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아이·임산부 건강, △감염병 예방, △건강기·금연·절주 등 생활 습관 개선, △어르신 건강관리,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보건진료소·진료소·병원·약국 현황 등 군민 건강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

보를 폭넓게 담았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해 책 속에 정리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건강정보 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콘텐츠와도 연계해 정보 활용도 접근성을 높인 점 등은 획기적인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이지영 보건행정과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건강 큐 행복 온’ 책자는 디자인과 기능성 모두를 충족시켰다”라며 “큰 글씨체와 넓은 행간, 명확한 색상 대비를 적용해 고령층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했고, 복잡한 데이터도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주의 자연과 지역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강조한 점도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책자 관련 문의는 무주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에코시스템의 김두원 대표가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김서주 기자

전남도, K-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시동

투명 경매시스템 도입한 국제 마른김 거래소 시범 운영, 마른김 검사 시연회 진행



전라남도는 23일 고흥군수협 마른김 검사소에서 국제 마른김 거래소 시범 운영 행사를 열어 K-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거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전라남도와 한국김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김 생산자 단체와 가공·수출업체, 국내외 바이어 등 김 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흥·신안·목포·나로도 등 주요 물길 위판 수협장도 함께해 국제 마른김 거래소 운영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본 행사에 앞서 마른김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거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마른김 검사 시연회가 진행됐다. 경매에는 도내 마른김 가공업체 34곳이 출품했으며, 국내외 바이어 30여 명이 참여해 현장 경매가 이뤄졌다. 최고 입찰가는 박스당 64만 8천 원을 기록했으며, 총 604박스 가 거래돼 24억 7천만 원의 거래액을 달성했다.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구축된 마른김 경매·거래 시스템은 김 품질의 표준화와 투명한 가격 형성을 가능하게 해 국내산 김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자가 제값을 받는 유통 구조 정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거래 시스템을 안정화해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 내 구축 중인 국제 마른김 거래소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 김 수출 7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김 종자 개발부터 가공·유통까지 산업 전 주기에 4천235억 원을 투입하는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김 산업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이번 시범 운영은 전남 김이 세계인의 식탁을 책임지는 글로벌 식품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2026년 정부 예산에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비 5억 원과 국제 마른김 거래소 플랫폼 구축비 8억 원을 신규 확보해 글로벌 김 산업을 선도할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전남이 글로벌 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여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남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농산물 시장 선점을 위해 2025년 처음 설정한 목표인 ‘저탄소농산물 인증면적’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전남도의 저탄소농산물 인증 실적은 284건에 5천664ha로, 전국 인증면적 1만 8천935ha의 33%를 차지해 전국 최대 규모다.

이는 지난해 인증면적 1천660ha보다 약 3배인 240% 증가한 결과다.

저탄소 인증규모는 시·도별로 ▲전남 5천664ha ▲전북 4천560ha ▲경북 3천265ha ▲충북 1천996ha 순으로, 전남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연간 약 1만 5천397톤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거뒀다.

저탄소농산물 인증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농축산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김영석 과장은 “전국 최대 친환경 인증면적을 보유한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서 저탄소농산물 인증 기반을 더욱 확충해 확대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덕현 기자

오랜 기다림과 기대,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

남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생활체육의 거점



남원시 반다비 체육센터가 23일, 남원시민들의 오랜 기다림과 기대 속에 첫 문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남원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와 체육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반다비 체육센터의 새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통합형 생활체육공간이다.

남원시는 지난 2023년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 총 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1층에 배드민턴과 탁구 등이 가능한 250평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과 2층에는 소다운실, 시각탁구실, 당구장, 헬스장, 가상현실 스포츠실 등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였다. 또한, 각종 행사, 대회 개최 시에 문제가 됐던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09대에서 66대가 추가된 175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다. 반다

비 체육센터의 개관으로 장애인 체육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남원의 장애인체육이 한층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더 큰 꿈과 성취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남원시 공중산업 민관협력제』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능력과 공중산업 거점단지를 연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2025년도 회의를 마무리했다.

신승민 기자

순창군 ‘농민 기본소득 200만원’ 공약 이행 완료

순창군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민선 8기 ‘농민 기본소득 200만원’ 공약사업이 올해 완료된다.

농민 기본소득 공약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농민공익수당 60만원과 군이 자체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한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원을 합쳐 연간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농민공익수당 60만원은 추석 이전 지급을 완료했으며, 이번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원은 선불카드(40만원)와 현금(1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선불카드는 오는 26일까지 주주식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현금 지급은 29일 개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은 국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중 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또는 연접 지역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올해 총 6,941농가에 지급된다. 지급 단가는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농 기준은 140만원 정액, 최대 3ha 이내 농가는 최대 158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군은 2022년 20만원, 2023년 60만원, 2024년 100만원으로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2025년에는 소농 기준 최대 140만원, 면적에 따라 최대 158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민선 8기 공약으로 제시한 단계별 로드맵을 완성했다.

이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제공함은 물론, 내년도 추진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은 농민 기본소득 성격의 사업으로, 향후 추진될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철학과 구조를 공유하는 선행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내년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농어촌 기본소득(180만원)으로 전환하여 모든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종료되는 사업은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이며, 전북도에서 추진중인 농민공익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신승민 기자